



보험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지표로서 ESG의 중요성

문혜정 연구원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ESG 리스크관리 및 책임투자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UN은 「손해보험회사의 ESG 언더라이팅 글로벌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함. ESG 정보공개 필요성이 높아지자 각국의 규제당국도 비재무적 정보 의무공시를 제도화하는 추세임. 대형 보험회사들은 ESG를 보험인수, 투자 등의 사업 의사결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있음. 보험회사는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 및 리스크관리를 실행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며, 특히 ESG는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새로운 고객으로 유입하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

■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ESG 리스크관리 및 책임투자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UN은 「손해보험회사의 ESG 언더라이팅 글로벌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함¹⁾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된 비재무적 요소를 뜻함
- UN 산하의 국제협약인 지속가능보험원칙(PSI)²⁾은 손해보험회사가 핵심 사업전략에 ESG를 반영하고 관련 리스크를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글로벌 가이드라인 초안을 제시함(〈표 1〉 참조)
 - 손해보험회사의 핵심 경영활동에 ESG 이슈를 반영할 때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비롯하여, 산업분야 및 사업라인별 ESG 리스크 정도를 열지도(Heat Map)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음³⁾

1) UNEP(2019. 2), “Underwritin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isks in non-life insurance business”, PSI working paper
 2) PSI(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는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가 2012년 6월 “리오+20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기 위해 선포한 국제협약으로, 보험회사들의 인수, 투자, 자산운용 등 핵심 경영활동 의사결정에 ESG 요소를 접목하고, 관련 정보제공, 인식제고 등을 위해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함
 3)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ESG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리스크평가에 유용한 핵심 지표들 또한 소개하고 있음

〈표 1〉 보험회사가 직면한 ESG 리스크

| 구분 | 주요 항목 | 리스크 평가기준 | 잠재위험 사업라인 ¹⁾ |
|----------------------|---------------|--|---|
| 환경 (Environment) | 기후변화 | 공기오염, 온실가스 배출, 이행리스크, 물리적 리스크 등 | 농업 관련 보험 재산보험 건설 및 기술보험 신용 및 보증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해상 및 적하보험 |
| | 환경오염 | 수질오염, 토양오염, 삼림파괴 등 | |
| | 보호지역 및 보호종 | 세계문화유산 및 보호지역에의 영향 멸종위기 보호종에 대한 영향 | |
| | 지속가능하지 않은 행위 | 비전통에너지 채굴, 불법조업, 논란이 되는 어업 및 양식행위 등 | |
| | 동물 보호 및 실험 | 가축운송 환경, 마취 또는 고통완화 기술, 논란 화학물질/의약품 사용 등 | |
| 사회 (Social) | 인권 | 아동 노동착취, 인신매매, 강제노동, 강제이주, 근로자 인권침해 등 | 농업 관련 보험 건설 및 기술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
| |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 | 화학·생물·독소무기, 대인지뢰 등 관련 | |
| 지배구조 (Governance) | 뇌물수수 및 부패 | 불법, 비윤리적 지급 행위 | 임원배상책임보험(D&O) 신용 및 보증보험 제조물책임보험(PL) |
| | 부실한 기업지배구조 | 반경쟁행위, 비윤리적 행위 | |
| | 상품의 안전 및 품질 | 비윤리적 행위, 소비자 건강 침해 행위 | |

주: 1) 사업라인별 ESG 리스크를 평가한 열지도에서 “잠재적 고위험 혹은 직접위험(빨강)”으로 평가된 사업라인을 위주로 소개함
 자료: UNEP(2019. 2), “Underwritin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isks in non-life insurance business”, PSI working paper, pp. 18~23

■ 최근 ESG의 정보공개 필요성이 높아지자 각국의 규제당국에서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의무공시를 제도화하는 추세임

- EU는 2014년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의무공시 지침(Directive 2014/95/EU)을 도입하고, 2018년부터 환경, 사회, 노동, 인권, 부패방지,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 공시하도록 함⁴⁾
- 미국은 ESG 중에서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별로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일본은 경제산업성에서 2017년 ESG 정보 공개를 촉진하는 지침을 발간함⁵⁾
- 우리나라도 금융위원회의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비재무적(ESG) 정보의 공시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함⁶⁾

■ 대형 보험회사들은 ESG 관련 리스크 및 기회를 보험인수, 투자 및 자산운용 등의 의사결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 Allianz는 자체적인 ESG 가이드라인⁷⁾을 기준으로 산업별 ESG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사업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매년 관련 사항을 공시함

4) 연평균 근로자수 500인 이상, 자산총액 2천 만 유로 혹은 순매출 4천 만 유로 이상인 대기업에 해당됨
 5) (사)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2017. 12),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업 ESG 정보공개제도의 국내외 현황, 주요사례 및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 연구용역보고서』, pp. 30~32
 6) 금융위원회(2019. 3. 7),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7) Allianz(2018), “ESG Integration Framework”

-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40년까지 투자 및 보험포트폴리오에서 석탄, 탄광 관련 사업을 제외할 것이라는 계획(Allianz Coal Phase-Out Plan)을 발표함
 - Swiss Re 또한 자체 가이드라인⁸⁾을 기준으로 산업별·국가별 ESG 리스크를 평가하여 사업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음
 - 자체 평가도구(Sensitive Business Risk, SBR)를 활용하여 ESG 리스크를 분석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되는 거래의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언더라이팅 진행 여부를 결정함
 - 2017년부터 투자 의사결정시 ESG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책임투자보고서(Responsible Investments)⁹⁾에 공유함
- 보험회사는 ESG를 고려한 책임 투자 및 리스크관리를 실행하고 이를 공시함으로써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며, 특히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새로운 보험소비자로 유입하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
- ESG 요소는 보험회사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어 보험회사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대표적인 지수¹⁰⁾ 산출 시에도 반영되어 자본시장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
 - 또한 평판리스크는 ESG와 관련된 대표적인 리스크로, 사업전략 수립 시 ESG를 고려함으로써 보험회사의 평판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음
 - Moody's의 조사결과¹¹⁾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86%가 ESG 인증이 회사의 평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86%가 지속가능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실생활에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행동하는 정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¹²⁾
 - 밀레니얼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ESG 관점에서 바람직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2배, 관련 기업 상품구매는 2배, 관련 기업 취업 의사는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kiri**

8) Swiss Re(2016. 7), "Sustainability Risk Framework"

9) Swiss Re(2018), *Responsible investments - The next steps in our journey*

10) 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DJSI), 코스피200 ESG 지수 등임

11) Moody's(2018. 5. 24), "Insurers increasingly engaged as ESG risks and opportunities come into focus", Moody's Investors Service, *SECTOR IN-DEPTH*, p. 2

12) Morgan Stanley(2017), "Sustainable Signals"